

매월 CMS를 통해 회비를 납부하시는 회원님  
2020년 기부금 영수증, 이렇게 확인하세요!

- 어디서? 국세청 홈텍스 [www.hometax.go.kr](http://www.hometax.go.kr)  
공인인증서 로그인-> 연말정산간소화->기부금
  - 언 제? 2021년 1월 중순 이후
  - 대상은?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한 후원자
- ※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은 741-5448로 연락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에이즈, 그리고 인권...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것,

**H**umour (웃음)  
**I**ntelligence (지식)  
**V**itality (활력)



**U=U**

나는 당신을  
감염시키지

**H**ope (희망)  
**I**nspiration (영감)  
**V**alue (가치)



**U=U**

나는 당신을  
감염시키지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것,

**H**onesty (정직)  
**I**ntegrity (청렴)  
**V**alor (용기)



**U=U**  
Undetectable=Untransmittable

나는 당신을  
감염시키지  
않습니다.

**H**umanity (인간성)  
**I**nterest (관심)  
**V**alues (가치)



**U=U**

나는 당신을  
감염시키지



레드리본은 유엔에이즈(UNAIDS)가 에이즈운동의 대표적인 상징물로 채택한 인식리본이다. HIV/AIDS를 예방하고, 치료제를 개발하며, 감염인의 인권을 지지하며 이해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상징이다.

## 목차

### 에이즈다이러리 01 | BIG DAY



12월 1일, 우리들의 이야기와 후원자님들께 드리는 감사 인사와 새로 이사 온 공간을 소개해 드리고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 활동가이야기 01 | 감염인의 장애인정에 관한 간담회



레드리본인권연대·대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2019년 협력사업에 참여했던 대구지역 활동가들이 모여 세계에이즈의 날 기념 포럼을 진행했습니다.

#### 01 여는글

장애의 범주안에서  
HIV감염인에 대한 차별을 고민하다 \_ 김성연

#### 10 PL Zoom In

PL과 함께한  
마그마(마음을 그리는 마당)활동 \_ 차명희

#### 02 에이즈다이러리 01

33회 세계에이즈의날 BIG DAY\_ 이소영

#### 12 HIV/AIDS 인식개선 캠페인

한국 최초 HIV 양성 스트리머  
'랑동'과의 교육 영상 제작기

#### 04 활동가이야기 01

HIV감염인 장애등록 및  
장애 범주 확대를 위한 포럼 \_ 이남영

#### 14 에이즈뉴스

#### 06 특집

HIV 감염인 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길라잡이 \_ 질병관리청

#### 17 U=U캠페인

#### 09 활동가 이야기 02

U=U 검출되지 않으면, 감염시키지 않아요!

#### 20 아름다운사람들

후원회원 & 후원금 & 물품후원  
빅데이행사 후원자 소개



발행처 (사)대한에이즈예방협회 대구경북지회  
주소 41088 대구광역시 동구 동호로9길 65 (뉴하모니빌딩 2층)  
발행인 김난희 편집인 김지영 발행일 2020년 12월  
전화 053-555-5448 팩스 053-742-5449 교육문의 053-742-5448  
홈페이지 <http://aids.mymedi.net> 이메일 [aids5448@hanmail.net](mailto:aids5448@hanmail.net)

후원안내 많은 분들의 관심과 그치지 않는 후원 부탁드립니다.

대구은행 : 005-10-000285  
후원문의 : 053-741-5448

"소중한 후원금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됩니다."

# 장애의 범주안에서 HIV감염인에 대한 차별을 고민하다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2014년 7월 17일 [요양병원들의 HIV/AIDS 감염인에 대한 입원 거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금지된 차별행위이다] 라는 현수막을 앞에 놓고 20여명의 사람들이 국가인권위원회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그 기자회견 자리에 함께 한 나는 장애쪽에서 활동한지 꽤 오랜시간이 지났음에도 그날 처음으로 연대발언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적용을 받아야하는 HIV감염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 그리고, 우리가 장애와 HIV감염인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한 것이 바로 그때 쯤인 것 같다. 이전까지 HIV 감염인에 대한 차별문제들을 헌법의 차별금지 조항이나 국가인권위원회법의 병력에 의한 차별행위 정도로 규정하고 결정해왔던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제는 장애의 범주와 정의안에서 적용해야한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후 몇 년뒤 국가인권위원회는 HIV 감염인과 AIDS 환자에 대한 의료차별 개선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본부장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 장애에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라는 취지의 정책권고를 결정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권고 과정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언급이나 HIV 감염인을 장애의 범주에서 판단해야한다는 이야기는 전혀 담겨있지 않았다. 그리고 이후 한참의 시간이 지나서야 우리는 HIV 감염인의 입원을 거부한 국립00병원에 대하여 장애 인차별금지법상의 차별행위로 판단하는 시정권고결정을 받을 수 있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테두리안에서 장애를 처음으로 인정 받게 된 것이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HIV감염인에 대한 차별은 계속되었고 인권위에도 의료차별, 고용차별 등 HIV감염을 이유로 하는 다양한 차별사태들이 진정으로 접수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진정들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은 여전히 국가인권위원회법이나 에이즈예방법을 기준으로 하고 있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지 올해로 벌써 12년이 되었다. 사회적 차별과 편견이 일상이었던 장애인에게 차별을 금지하는 법의 시행은 많은 변화를 가지고 왔다. 그 중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는 법의 존재를 통해 장애인을 차별하면 안된다는 기본적인 인식이 사회적

반에 자리잡게 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인식이 있다고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나쁜 것은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차별하기 때문이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상황과 조건들이 아닌 그 사람 자체의 근본적인 차이에 편견과 선입견이라는 생각을 더하여 차별하기 때문에 당하는 사람은 그저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HIV감염인의 차별 역시 마찬가지다. 결국 이 차별이 단단한 사회적 장벽이 되고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헌법의 기본권이나 병력에 의한 개별적인 차별이 아니라, HIV감염인이라는 근본적인 차이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편견기득한 차별행위이기에 이제 장애라는 범주안에서 장애인차별금지라는 기본적인 원칙으로 대응해야할 것이다.

2019년 특별한 교육을 대구에서 요청받았다. “HIV감염인의 법정 장애인정을 위한 협력사업”을 대구의 장애인단체와 HIV감염인 관련 단체들이 함께 하고 있으니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이야기해달라는 것이었다. 그 교육에서의 주제는 명확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장기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손상이 있어 사회적 제약이 발생하는 경우를 장애로 판단하기에 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HIV감염인은 명백하게 이 법의 테두리안에 포함되는 장애인임을 이야기 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법을 통해 차별을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지도...

이렇게 2019년 다양한 유형의 등록장애인 당사자와 HIV감염인들이 함께 공부하고 경험하고 논의하는 자리 이후 문제의식을 이어서 법정장애등록을 위한 다양한 방향을 모색하는 두차례의 간담회가 올해 연말에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 참여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들으며 나도 다시 고민을 이어가려고 한다. 법정장애등록을 통해 장애인복지법상의 적절한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의 범주안에서 적극적으로 차별에 대응해 나가기 위하여, 그리고 무엇보다 편견과 선입견이 가득한 거짓 정보가 아닌 법률을 기반으로 하는 장애유형으로 제대로된 정보가 제공될수 있도록, 이제 2021년을 시작하며 한걸음씩 나아가갈 그들의 발걸음에 함께하려고 한다.



# BIG DAY

이소영 | 활동가

12월 1일부터 세계에이즈의 날을 맞이하여 5일간 후원카페를 운영했습니다.

12월 1일, 당일 날에는 BIG DAY로 우리들의 이야기와 후원자님들께 드리는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또, 후원자님들에게 새로 아사온 공간을 소개해 드리고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자란 부분이 있었음에도 저희가 준비한 시간에 즐겁게 웃어주시고, 격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날 저희를 믿고, 응원해주신 후원자님들 덕분에 무사히 행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 마음에 보답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나아가는 길을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고, 함께해주세요.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



인사말씀하시는 김난희 협회장님



소셜카페 빅핸즈 본점가족 ~ 코로나 양~되요!





축하공연



차명희소장님



빅데이 시크릿박스



빅데이 시크릿박스



그린그루브 선물세트



에이즈예방강사 큰연니~양정미쌤



빅해즈의 시크릿파워~ 허 항처장님



빅데이 땡큐 선물세트



협회가족(두은, 소영, 남영)~ 코로나 앙~되요

※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카페 내에 방역을 마치고 행사를 진행했음을 알려드립니다.

# HIV/AIDS 감염인의 장애인정 및 장애범주 확대를 위한 간담회

글정리\_ 이남영 | 활동가

HIV 감염인들의 대부분은 면역력 약화로 인한 신체적 고통과 낙인과 편견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위한 지원은 에이즈 치료를 제외하고는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들을 법의 울타리 내에서 보호받게 하기 위해, HIV감염인의 장애인정 및 장애 범주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3차례에 걸쳐 진행했습니다.

## 1차 활동가 간담회(2020.10.13.)

레드리본인권연대·대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2019년 협력사업에 참여했던 대구지역 활동가들이 모여 1차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가장 먼저, 장애등록을 위한 공익소송사업에 대한 기반에 대해 의논하고 국내 HIV감염인 현황과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하여 장애등록의 필요성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2차 간담회를 진행할 방식에 대해 의논 하였습니다.



## 2차 간담회 (2020.11.12.)

코로나19로 인해 ZOOM 온라인 회의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대한에이즈예방협회 대구경북지회 차명희 상담소장님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김성연 사무국장님,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염형국 변호사님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발표를 통해 HIV감염인의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고통과 낙인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어려움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재 이들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상태이지만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 유형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HIV감염인과 같이 지원이 필요하지만 장애인복지법 상의 장애 유형이 아니라는 이유로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CRPS, 뚜렛증후군 등) 이들과 함께 HIV감염인도 공익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송을 통해 의미있는 판례가 만들어진다면 이미 정해진 기준을 바꿀 수 있는 또 하나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 세계에이즈의날 기념 HIV감염인 장애등록 및 장애범주 확대를 위한 포럼

- 일시 : 2020년 12월 1일(화)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대구교육센터
- 진행 : 김지영, 전근배
- 발제 : 조윤희
- 지정토론 : 김성연 나영정 차명희 김선득 손문수 조윤희

세계에이즈의날을 기념하여 진행한 포럼은 ZOOM 온라인 회의로 전국의 활동가들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포럼은 발제자의 발표 후 지정토론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발제 내용은 장애인복지법 제도권 밖 소수자의 복지욕구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손문수(한국 HIV/AIDS 감염인 연합회 KNP+대표) : 당사자가 겪는 부당함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 감염인은 장애인이 되어야 한다. 해외사례 중 일본의 경우 장애등록을 했을 때 이미 혈우병 환자에게 대한 인정이다.

우리나라와는 다른 경우다. 감염인이 장애인이 되어야 하는 이유 그리고 꼭 필요한 이유는 감염인에 대한 사회적

심각한 건강권 박탈, 단순한 장애복지 정책에 차원이 아닌 감염인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문제이다. 2개월 전에 엄지손가락이 절단된 감염인이 접합수술만이라도 해달라고 했을 때 서울.경기 수도권 지역 대형병원에서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진료거부 사례가 있었다. 13시간을 방치되어있다가 겨우 접합수술을 했지만 이미 손가락의 기능은 잃은 상태였다. 또 다른 사례는 요양병원 입원불가한 상황 치료와 입원이 절실한 상황에 HIV라는 사회적 차별로 인해 생존권이 위협받는 현실에서 인권구제의 의미와 법과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

차명희((사)대한에이즈예방협회 대구경북지회 상담소장)

: 장애인차별금지법상 2019년에 국가인권위에 권고 사례가 있었다.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왼쪽을 편측마비 감염인이 국립재활원에 입원하겠다고 했을 때 국립재활원에서 CD4가 200이하였기 때문에 입원할 수 없다고 했다. 200이 넘어서 다시 병원으로 갔을 때 또 입원 거절을 당했다. 결국은 입원을 받아주지 않는 이유는 HIV이기 때문이다. 흔히 우리병원에는 감염내과가 없다.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안된다는 것이 아니라 감염내과가 없다고 거절을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31조에 따른 장애인차별금지법 31조에 따른 의료차별금지행위로 판단했다. 강제성과 권리구제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크다고 보여진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장애인차별 금지법은 투쟁의 결과다.

**김성연(장애인차별금지법추진연대 사무국장) :**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아닌 장애인복지법상의 고민을 나눌 필요가 있다.

CRPS, 치매, HIV, 안면장애, 기면증 등 현재 장애로 인정 받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한 공익소송을 준비해야 한다. 복합 통증 사례를 중심으로 복지부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고 기다리는 중이다. 1차 논의 간담회 때 감염인이 장애인복지법상의 범위에 들어와야 한다는 것, 현재 장차법에

손상의 경우 장애등록 여부와 관련 없이 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신체적 기능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장차법에 보호를 받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다. 그렇다면 기능상의 어려움이 현재 없다면 차별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다. 실제로 장애인복지법상 본인의 상황에 따라 차별이라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능상의 어려움이 없는 경우 어떻게 장애로 판단하고 지원을 할 수 있을까? 또 다른 고민은 부분은 장차법 안에선 기능상의 어려움을 중심으로 판단하다 보니 그렇지않은 사례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 치매의 경우 어떻게 차별대응을 할 것인가? 고민이 발생 서비스와 관련한 부분들 때문에 복지법안의 규정을 만들어 놓지 않는다면 관련한 법을 적용할 때 다시 고민과 논의가 필요한 상황에 놓여진다. 예상되는 또는 발생하는 장애인복지법상 안에 범주에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적극적으로 범주 안에 넣고자 하는 이유는 이제껏 겪어온 차별 등을 보호받자는 것이고 공익소송을 하는 이유는 법적으로 이것이 맞다라는 근거를 마련하고 권리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는 문제를 반복해서 가지고 가면서 장애범주를, 규정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볼 것이냐에 대해 해보려고







하는 것이 공익소송의 목적 중 하나이다.

**김선득(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익옹호 팀장) :**  
장차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분리해서 고민을 하면 좋겠다. 장차법은 2019년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많은 소송을 했으면 좋겠다.

감염인은 고용과 의료의 차별을 많이 겪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당사자의 사례를 많이 늘리고 많은 진정을 하면 좋겠다.

장애인복지법 관련해서는 감염인에 대한 지원이 많이 없을 것 같다. 장애인복지법 자체를 장애인고용법처럼 전면 개정을 하면 좋겠다. 장애계와 같이 그런 내용을 만들어 가면 좋을 것 같다. 독일의 경우 고용에 대한 법을 강화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전력적인 것이 필요하다. 늘 고민인 것은 감염인 장애 등록에 대해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다. 현재 대구 서울 당사자들과 활동가만 알고 있는 듯하다. 이 논의에 대해 전국적으로 알리고 감염인 당사자를 조직적으로 만드는 것이 우선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나영정(장애여성 공감) :** 장애인복지법 범주에 드는 것보다 장차법의 사례를 늘려나가는 것이 전략적일 것이다. 둘 다 노력하는 것이 좋지만 핵심은 법의 한계를 지적, 법을 대하는 태도와 법안에 우리가 포함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하다.

장애 운동 안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장차법과 복지법의 한계와 법적 인정의 사례를 찾기 힘들다. 이것을 바꾸려고 한다면 HIV가 너무 부담을 지는 방식이기도 하다. 감염인 운동에서 기본적으로 장애인의 삶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비슷한지를 찾아보고 알지 못한다면 사회적인 고통이 얼마나 비슷한지를 찾아야 한다. 그 안에서 차별과 사회적 고통의 비슷한 점을 찾아야 우리가 국가에게 요구하는 것을 말할 수 있다. 감염인은 얼마나 손상된 사람이 아니라 얼마나 차별받는 대상인가를 알릴 필요가 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기초수급자로 하는 것은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을 다니지 못하는 등 고립될 뿐, 권리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을 결국 고용상 노동권 차별을 기초생활권과 주거권에 관련된 것들을 이야기하며 우리의 권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조윤희(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부 자립지원연구팀 부연구위원) :** 건강적 제약을 가졌다고 포괄을 할 수 있다. 뚜렛 기면증 CRPS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 2019년은 포괄적 정신장애 개념으로 접근했다. 질환을 중심으로 넣었다 뺐다가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 정신장애 대상자 선정기준을 지금이라도 포괄적으로 적용하여 15개 장애 유형을 깨자. 등록체계 개편이 하나의 꼭지가 될 수 있다. 그것에 대한 서비스 대상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논의되고 있다. 장애등록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외적인 장치가 작동한다. 장애등록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논의 질환에 대한 접근이 아니라 더 큰 맥락으로 연구를 하겠다. <공존35>

# HIV 감염이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 길라잡이 마련

##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은 HIV 감염인이 차별 없이 진료받고, 의료진과 환자 모두가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HIV 감염인 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길라잡이」를 마련하여 보급한다. 이번 길라잡이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HIV 감염인 의료차별 행위에 대한 진정 제기 후 정책 권고 결정에 대한 후속 조치이다.

**1. (환자의 건강권)** 모든 환자는 성별, 나이, 국적, 인종, 종교, 언어, 사회경제적 상태, 장애 여부, 성적체성, HIV 감염을 포함한 건강상태, 약물사용 또는 수감 여부와 상관없이 의료기관에서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2. (차별 없는 진료)** 의료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HIV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진료(입원과 수술 포함)를 거부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한 의학적 사유(결핵과 같이 감염 전파 가능성이 있는 감염병이 동반된 경우, 면역저하로 보호 목적의 격리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침습적 시술 또는 수술을 더 안전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없이 HIV 감염인을 별도의 장소에서 진료하거나 진료 순서를 뒤로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3. (검사 및 상담)** 의료진은 환자의 HIV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검사에 대한 설명과 동의 과정을 권장합니다. 검사 결과가 보고되면, 선별 검사의 위양성 가능성이 있을 수 있음을 포함하여 추후관리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4. (비밀 보장과 사생활 보호)** 의료제공자는 진료과정에서 인지한 환자의 HIV 감염 사실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며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의료기관 내에서 다른 환자들이나 비감염인이 HIV 감염 인임을 알아볼 수 있는 별도의 표시를 환자의 침상이나 차트 등에 하지 않아야 합니다. (단, 감염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의료진만이 알 수 있는 방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5. (환자 존중)** 의료제공자는 HIV 감염인, 취약군과 면담할 때에 질환이나 성적지향 등에 대한 혐오나 경멸이 섞인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을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의료진은 진료 시에 환자의 인격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합니다.

**6. (감염관리-표준주의 의무 준수)** 의료 제공자는 모든 환자의 진료 과정에서 표준주의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혈액을 다루거나 침습적 시술이 아닌 일상적인 진료에서 HIV 감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환자의 진료와 다르게 필요 이상의 보호구를 착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료진은 HIV 감염인의 수술 시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위해 공통적인 혈액매개병원체 주의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7. (교육과 훈련: 학회의 책무성)** 관련 의료단체는 차별이 환자의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인식하여 의료제공자에게 환자인권 감수성을 향상시키고, HIV 감염인에 대한 이해의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시행하고, 사회적 낙인과 차별의 감소를 위해 전문가적인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8. (정책: 국가의 책무성)** 보건당국(중앙정부, 지자체 등)은 HIV 감염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차별을 예방하고, 환자와 의료 제공자의 안전을 위한 교육·홍보를 실시 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기관 감염관리에 필요한 적절한 자원을 공급하고 모니터링 해야 합니다.

## U=U 검출되지 않으면 감염시키지 않아요!

33회 세계에이즈의날을 맞아 활동가들이 U=U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U=U는 감염인이 6개월동안 꾸준히 치료하면, HIV가 체내에서 검출되지 않으며, 이로써 타인에게 감염시킬 수 없음을 뜻하는 전세계적인 캠페인입니다. 이 캠페인을 통해 우리들은 감염인에 대한 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또 감염인에 대한 비범죄화를 지지하며,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19조 전파매개행위 금지의 폐지에 동참합니다.





## 프리다에게서 내면의 아픔을 드러낼 수 있는 용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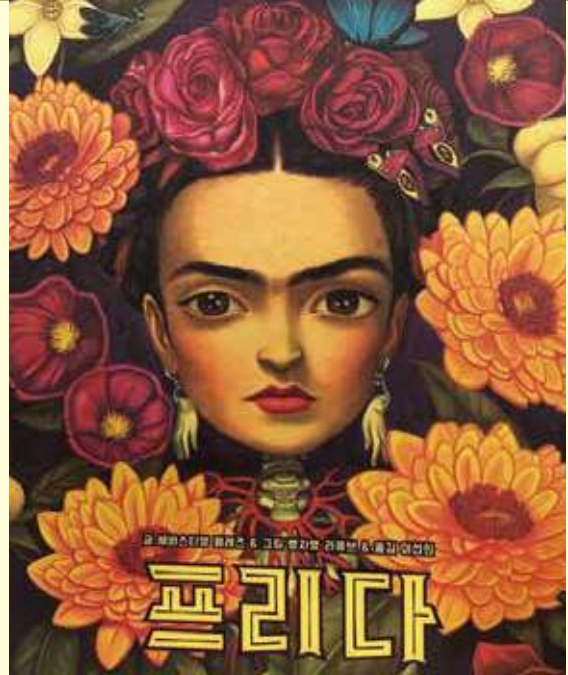
차명희 상담소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이 진실은 아니다. 누가 이 아름다운 여인에게서 고통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만 그녀는 건강한 삶에서 6살부터 벗어나 있었다. 소아마비로 다리 굽기가 달라 늘 긴치마를 입어야 했었고, 이후 교통사고로 누워서만 지내야 했던 적도 있었으며 평생 뼈사이를 붙이고 지내야 했었다. 그 기간동안 의학도의 꿈은 불가능해지고 그림을 그리는 화가로 삶이 바뀌었다. 어느 날 모아둔 그림을 들고 멕시코의 당대 유명한 화가인 라베르에게 가서 그림을 봐달라고 하였다. 그녀의 그림은 남다른 우수성을 인정받았고, 이후 그녀는 나이 차이가 많고 뚱뚱한 라베르와 결혼하게 된다. 결혼 이후도 몸의 형편상 유산을 하게 되고 그러한 핏빛 경험을 화폭에 옮겼다.

그녀의 그림 150여점 중에서 55점이 자화상이다. 그 자화상은 기쁘고 행복하고 자랑하는 그림이 아니라 남편의 외도와 유산 등 자신의 경험에 밀착한 그림들을 그린다. 아픔을 예술로 승화할 수 있다는 것을 그녀를 보고 다시금 알게 되었다

마음 내면의 상처로 눈물 흘리는 자화상, 사랑하는 사람의 아기를 낳지 못하는 고통 등등이 자신의 그림들에 자화상에 그대로 드러내었다. 우리가 좋은 것만 내보이지 않아도 된다. 예술은 고통 위에서도 가능하다. 고통 위에서 자신의 아픔을 말하는 것은 예술의 승화이다.

그럴 수 있다면 나의 감정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면 멋진 일이다. 느낀 것을 무언가로 표현할 수 있다면 그것은



더욱 멋진 일이다. 표현된 것을 더 승화시켜 바꾸어 표현할 수 있다면 그것은 더욱 멋진 일이며 바로 치유와 성장으로 방향을 바꾸게 된다.

그림을 통한 마음돌봄의 방편으로 마그마M분석가가 되면서 나를 느끼는 대로 표현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표현하는 것만도 치유가 됨을 알게 되었다. 아래 그림들은 그림으로 자신을 만나는 집단상담을 운영하면서 그린 그림을 무의식과 통합한 것을 함께 본 것이다.


프리다칼로는 아니지만 그녀보다 더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의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의 표현이다. 메마른 사회에서 힘들어하는 HIV 감염인들에게는 내면을 돌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조차 없다. 아래 그림들은 이들의 마음을 읽고, 나누는 과정에서 탄생한 그림이다. 차별과 편견으로 팍팍해진 세상 속에서 돌보지 못한 마음의 응어리를 녹여낼 수 있는 마그마 작업이 마음속에서 올라오고 있다. 원래 자신이 그린 그림은 익숙하나 변화한 그림은 아직은 낯설기도 하다. 아래는 상담실에서 만난 분들의 내면에서 나와 통합된 그림들이다.



이를 내년에는 작품전시로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다. 프리다 칼로처럼 고통받고 아픔을 드러내는 것도 사회적 공감의 시작이기에!



PL 분들과 마그마(마음을 그리는 마당)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원그림	→	변화 후그림
		
<p>분노와 고통으로 살이 녹아내리는 마음. 현실에서 감염인으로 살아가기가 힘든 지점이 표현됨. 그 단절의 고통이 격심하게 내면의 울렁임을 가져옴</p>		<p>분노의 마그마 화산이 붉은 중심핵이 있고 주변의 무의식과 조화를 이루어 건강성과 생명력있는 에너지로 다시 태어남</p>

원그림	→	변화 후그림
		
<p>중심의 바탕에 열린 분홍으로 칠해져있어 흰면처럼 보임. 얼굴을 파랑으로 뭉개고 원으로 만들어 드러냄</p>		<p>에너지와 생기를 올리고 얼굴을 도로 찾아 올림. 중앙에 무의식 라인을 긋고 전체의 얼굴을 드러냄.</p>

원그림	→	변화 후그림
		
<p>그림을 그리기 전의 장면임. 여린 필압으로 색연필을 부분 빈 면이 있도록 그려 올림.</p>		<p>꿈에서 본 저승문입구를 에너지가 있는 문으로 바꾸고 다양한 자신의 가벼운 모습을 몽이로 보여드리고 스스로 점을 찍도록함. 마음이 편안하여지심</p>

원그림	→	변화 후그림
		
<p>신비로운 색으로 그림을 그림. 고통과 현실의 어려움이 함께 녹아나는 배경색으로 그대로 통합의 느낌이 올라옴</p>		<p>빈 면을 채우고 에너지를 곳곳에 올리며 드림. 있는 그대로 내면을 표현한다는 것은 그대로 내면의 통합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그림임</p>

원그림	→	변화 후그림
		
		<p>원그림은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우울이 심한 상태임. 분절되고 힘든 자신의 마음이 여러 색으로 경계없이 펼쳐져 있음. 좌측그림에서 드러내어진 욕구의 크기에 현실로 수용이 어려움. 처음엔 이 그림을 즐겨워하였으나, 이 후 커다란 새가 자신을 공격해 오는 것 같아서 수용이 어려운 상태임. 다른 곳에 보관, 익숙해지기를 하는 중임.</p>



# HIV AIDS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는  
면역세포를 파괴하는 바이러스**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에 의해 면역세포가  
파괴되어 면역기능이 떨어진 상태**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감기조차 이기지 못할 정도로**

제33회 세계에이즈의 날을 맞이하여 에이즈 인식개선과 차별 및 편견 해소를 위해 청소년 비대면 교육 콘텐츠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치료제를 꾸준히 복용하면 평생 관리가 가능하고 타인을 감염시키지 않는 만성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에이즈에 낙인을 찍고, 잘못된 정보가 사실인 마냥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효과적인 지식전달 및 인식개선을 위해 다시 한번 랑동을 만나 긴 시간 동안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랑동의 정체를 밝히지 않은 채, 10대 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과 대화를 하며, 랑동의

정체를 유추하는 영상을 찍었습니다. 랑동과 대화를 나누던 사람들은 그가 HIV감염인이라는 사실을 밝힐 때까지 그가 감염인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는 HIV감염인은 우리 주변에 있는 평범한 사람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랑동이 감염인이라는 사실을 밝히자 함께 촬영을 했던 사람들은 당황한 기색이 있었으나, 랑동의 말을 들으며 잘못된 지식을 바로잡고,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사실로 알고 있었던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하기도 했습니다. 랑동의 말을 경청하고 공감하며, 에이즈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나갔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 촬영했음을 알려드립니다.







## '에이즈 감염인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없다'에 69.4%가 그렇다고 대답했고, 2019년 우리나라 질병관리청의 조사결과다

의학적으로 극복 가능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여전히 매장 당하는 에이즈

\_By 황혜원 기자

세계보건기구(WHO)는 매년 12월 1일을 '세계에이즈의날(World AIDS Day)'로 정하고, 에이즈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는 다양한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크리스마스 등 시즌을 적극 활용하여 기업, 정부와 협력해 전 세계 에이즈 사망자를 애도하고, 예방과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강조하는 것이 주요 사안이다.

특히 2020년, 올해 세계에이즈의날은 '세계적 연대, 공동의 책임(Global Solidarity, Shared Responsibility)'을 주제로 정하고 전 세계가 공동의 책임의식을 갖고 HIV/AIDS 종식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함을 이야기했다.



2015년 12월 1일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의 모습. 세계에이즈의날을 기념하는 빨간색 리본을 걸었다. 세계 에이즈의날은 1988년부터 12월 1일에 기념되어 왔으며, HIV 감염의 확산으로 인한 에이즈의 대유행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사망자를 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을 고립시키고 있다.

한 예로 지난 10월,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건강검진 과정에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Human Immunodeficiency Virus)에 감염이 확인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퇴직하게 된 전직 구급대원 A씨와 도소방재난본부 간의 법정 공방이 빚어진 사건이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HIV에 감염되어도 적극적으로 치료를 할 경우 B형간염이나 C형간염 보다도 전염률이 낮으며, 질병으로 인해 무조건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해석과 함께 복직을 권고했지만, 도소방재난본부는 구급대원이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는 특수직이라는 점과 도민의 전염 위험을 막기 위해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 밥 같이 먹으면 에이즈 전염? 같은 직장 다니면 해고되어야?

사회적 편견과 낙인은 여전히 심각

질병관리청이 지난해 전국 1천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HIV/AIDS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여전히 공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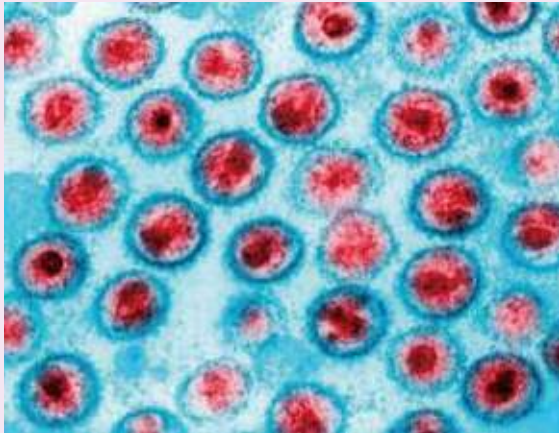


2017년 12월 1일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 내 애플스토어의 애플 로고가 빨간색으로 바뀌었다. 세계에이즈의날 캠페인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의미로 전시되었으며, 매년 애플은 세계에이즈의날을 지원하고 이에 따라 실제와 가상 애플 스토어를 장식해왔다.

이는 감염인과 비감염인으로 구분짓지 않고, 특정 국가와 지역의 문제로 터부시하지 않는 일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만 해도 첫 에이즈 환자가 발생한 1985년 이래 35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HIV/AIDS 종식을 위해서 공동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보다는 편견과 낙인으로 감염인

에이즈에 대한 지식 수준을 살펴본 결과, 포옹, 악수 등 가벼운 접촉으로 에이즈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지식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키스, 식사, 변기사용 등 좀 더 긴밀한 접촉으로 에이즈에 걸릴 수 있다고 답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즉 일상생활로는 에이즈에 감염이 되지 않음을 알고는 있으나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자현미경으로 본 에이즈

2019년 에이즈에 대한 개인적 낙인(개개인 스스로가 감염인을 차별하는 정도) 인식 조사에서는 '나는 에이즈 감염인과 같은 직장에 다닐 경우, 회사에서 그 감염인을 해고시키길 원한다'에 대해 '그렇다'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39.1%, '나는 자녀가 에이즈 감염인과 같은 학교에 다닐 경우, 해당 학교를 다니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나는 에이즈 감염인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없다', 의 질문에 각각 45.1%, 52.4%의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적 낙인(사회 또는 타인이 감염인을 차별하는 정도) 인식 조사에서는 '대부분 사람들은 에이즈 감염인과 같은 직장에 다닐 경우, 회사에서 그 감염인을 해고시키길 원한다'에 대해 '그렇다'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50.8%, '대부분 사람들은 자녀가 에이즈 감염인과 같은 학교에 다닐 경우, 해당 학교를 다니지 못하게 할 것이다', '대부분 사람들은 에이즈 감염인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없다'의 질문에 각각 59.4%, 69.4%라고 응답했다.

나라면 '식사를 함께 할 수 있다'에 약 50%가 손을 들었

지만, 대부분 사람들, 나를 제외한 일반 사회에서는 30%의 사람만이 식사를 함께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는 에이즈를 생각하는 개인적인 성숙도가 비록 올라갔을 지언정 사회적으로는 여전히 편견이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세계적으로는 감소 추세지만, 대한민국은 증가세

신분노출, 양성애에 대한 두려움으로 검진 기피가 원인

국제연합 산하의 에이즈 전담기구인 유엔에이즈계획(UNAIDS)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 세계 HIV 감염자 수는 약 120만명~220만명으로 추정되며, 이는 2010년 이후 신규 감염자 수가 약 23% 감소된 결과다.



2003년 9월 22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렸던 'HIV/AIDS' 관련 총회 모습

UNAIDS의 보고에 따르면, 밀레니엄 서밋에서 설정한 목표들은 대부분 국가들이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한다. 그 목표들 중 하나는 2005년까지 3백만 명의 HIV 양성자들을 에이즈 약으로 치료하게 하고 2015년까지 이 질병을 멈추게 하고 역전시키는 것이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매년 1천 명 가량의 신규 HIV 감염 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며, 2019년 한 해 HIV 국내 신규



감염인은 1,222명을 기록, HIV 국내 누적 감염인은 1만 3천명을 넘어섰다.



2016년 당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뉴욕 유엔본부에서 에이즈(AIDS) 종식 특별정상 회의를 열었던 모습.

HIV 감염인 S씨는 “HIV 검사과정은 대상자에게겐 공포 그 자체”라며, “신분이 노출되는 즉시 주변인으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받고, 검사 결과가 양성일 경우엔 내가 속한 사회에서 매장당할 것이라는 각오를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덧붙여 “HIV 초기 검사가 활성화될 수 있으려면 개인의 노력과 더불어 사회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실제로 HIV/AIDS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은 검사와 치료과정에서의 부담을 크게 가중시킨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12월 3일,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권고를 받아 ‘HIV/AIDS 감염인 인권보호를 위한 의료기관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보급하기 시작했다. 이는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에서조차 검사와 상담, 치료과정에서 충분한 이해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한편, 우리나라는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HIV/AIDS 무료 익명검사를 제공하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코로나 검진 외에는 보건소의 시민 대상 보건의료서비스가 잠정 중단되면서, 검사 접근성 역시 크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검사가 미비하게 이루어진다면 신규 감염자의 발견은 늦어질 수 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초기의 효과적 치료는 요원할 수 밖에 없다.

## 조기 진단 후 초기 치료를 통해 평생 관리 가능

### 예방 위해선 콘돔과 노출 전 예방요법 활용

HIV/AIDS 감염여부는 증상만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검사로 감염 여부를 확인한다. 조기 진단과 치료는 HIV 감염인의 건강유지, 증진과 타인에 대한 전파 예방 모두에 효과적이다. 조기에 치료를 하면 면역기능 저하와 관련된 합병증 뿐 아니라, 면역기능 저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합병증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꾸준한 항바이러스제 복용으로 바이러스가 잘 억제 되면 타인에 HIV를 전파할 위험도 거의 없다.

올바른 콘돔 사용이 에이즈의 확산을 막는데 큰 도움이 된다. 에이즈는 주로 위험한 성접촉(상대방의 감염여부를 모르고 콘돔을 사용하지 않는 등)에 의해 발생하므로 올바른 콘돔사용법을 통해 HIV/AIDS를 예방할 수 있으며, 고정적인 파트너와 안전한 성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권고된다. 또한, 국내에서도 HIV에 감염되지 않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HIV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먹는 약으로 개발된 노출 전 예방요법이 도입되었다. 약을 매일 복용하며 성관계 시 콘돔을 사용하고, 정기적 상담을 지속한다면 감염의 전파를 막을 수 있다.

출처 :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5fd81c4dc5b690d5d3069cec](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5fd81c4dc5b690d5d3069cec)

허핑턴뉴스(20.12.16) \_ 황혜원기자



# U=U 캠페인

2020년 에이즈인권주간(11월 23일~12월 5일)을 맞이하여 HIV인권활동가네트워크 &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 커뮤니티와 함께 U=U 슬로건을 사용한 인증샷 찍기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U=U는 Undetectable=Untransmittable, 바이러스 미검출=전파 불가) 라는 의미이며, HIV감염인이 꾸준히 치료제를 복용할 경우 바이러스 수치가 현저하게 낮아져 타인에게 감염시킬 수 없다는 것을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HIV/AIDS 감염인 의료연대기금

# 빅핸즈 RED CARE

## 빅핸즈 의료연대기금이란?

(RED CARE)

HIV/AIDS 감염인은 건강의 불안이 심리 기저에 항상 존재한다. 의료연대기금(RED CARE)은 질병으로 인한 신체적 고통, 심리적 불안을 완화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기금 지원 사업이다.



가입  
조건

월 3천원을 낼 의향이 있는 HIV 감염인 입회자

지원  
혜택

의료연대 입회자에 한해 치료비 혹은 요양비 제공

지원  
금액

1인당 연간 최대 20만원

상담  
문의

대한에이즈예방협회 대구경북지회 상담실  
053)555-5448

주관 (사)대한에이즈예방협회 대구경북지회  
후원 레드리본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적 주택 꿈담채 입주자 모집 및 주거 자립 지원 사업

# 빅핸즈 매칭펀드

- 꿈담채 입주기준 : HIV감염인 중 무주택 저소득층 우선 입주
- 꿈담채 입주혜택 : 숙식제공(1인 1실, 개별 화장실), 바리스타 자격과정 무료 참여, 1일 1음료 무상 제공  
※상기 혜택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상담 및 문의 : 053)555-5448
- 매칭펀드 대상 : 사회적주택 꿈담채 입주자
- 매칭펀드 지원 : 월 10만원 1:1 매칭지원 (1인당 최대 100만원)



본 기금은 레드리본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소셜카페 빅핸즈의 수익금으로 운영됩니다.

(사)대한에이즈예방협회 대구경북지회 레드리본사회적협동조합 후원 질병관리청,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 웹 기반 HIV 검사 및 상담프로그램 지원자 모집

## 연구의 필요성

- 언택트(Untact)시대 비대면으로  
검사 및 전문상담 제공  
- HIV 검사법의 다양화를 통한  
HIV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위한

## 연구대상

HIV 고위험군  
- 감염 우려 상황에 노출 후 최소 12주가 지난 자  
- 감염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군(MSM)  
※ 연구제외 대상  
- HIV 감염인 및 에이즈 환자로 진단받은 자  
- HIV 포비아

## 연구 참여 절차 및 방법

- 1) 오라퀵검사상담센터(OOSS) 홈페이지 회원가입
- 2) 참여 전 선별조사를 통한 참여여부 결정
- 3) 검사 전 설문조사 참여
- 4) 오라퀵 검사 Kit 신청
- 5) 배송받은 후 1주일 이내 검사 결과 확인을 위한 전화 및 웹상담 시행
- 6) 검사 후 설문조사 참여
- 7) 검사 후기 참여
- 8) 오라퀵검사상담센터 만족도 조사 참여

\*설문조사 및 만족도 조사와 후기를 남겨주신 분에게 소정의 답례품(e-기프트콘)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 신청방법


오라퀵검사상담센터(<http://ooss.co.kr>)  
홈페이지 내 회원가입 및 선별조사 및  
오라퀵 검사 kit 신청

## 문의사항

프로그램 담당자 이소영  
-전화 : 053)555-5448  
-상담가능시간 : 주중 9am~18pm



주관 :  건양대학교 간호학과 양혜진

협약기관 :  (사)대한에이즈예방협회 대구경북지회

※ 본 연구는 2019년도 한국연구재단 지원에 의해 수행되고 있습니다. (과제번호: NRF-2019R1G1A100447312)

**후원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후원은 꼭 필요한 곳에 후원자의 마음을 담아 소중하게 쓰겠습니다.**

**2020년 뿌리회원** 김난희, 김신우, 강두용, 강신탕, 강은자, 강현구, 고재동, 곽영숙, 곽춘선, 곽호림, 구본순, 권기태, 권기화, 권동하, 권위자, 권혁장, 권현희, 김경남, 김경주, 김남주, 김도은, 김동목, 김동현, 김미애, 김미영, 김병균, 김보연, 김복순, 김선득, 김선미, 김선영, 김성욱, 김수동, 김숙희, 김순래, 김신영, 김영애, 김영철, 김영훈, 김우석, 김원환, 김윤정, 김윤주, 김은영, 김인곤, 김정란, 김정성, 김정순, 김정훈, 김종성, 김종일, 김종호, 김지영, 김지윤, 김지훈, 김진희, 김태건, 김태곤, 김태수, 김태연, 김태연, 김하윤, 김한중, 김현경, 김현만, 김형석, 김혜정, 김호희, 김후남, 김희숙, 김희자, 남윤경, 남은주, 남주형, 남태진, 노정택, 류영욱, 문명라, 문정희, 박문순, 박미준, 박선희, 박세준, 박수련, 박순문, 박 연, 박연주, 박영순, 박영은, 박영희, 박윤숙, 박은향, 박정미, 박정민, 박정희, 박진영, 박진주, 박진혁, 박춘희, 박태경, 박현지, 박혜경, 박희정, 배수용, 배윤주, 배재호, 배진교, 서보석, 서진호, 서형석, 서혜진, 석제홍, 손명숙, 손심은, 송병욱, 송영주, 송현식, 송현배, 시경현, 신미혜, 신정민, 신혜원, 심보권, 심현숙, 안계림, 안정욱, 양석욱, 양정미, 여용태, 여행규, 오미정, 오석희, 오종대, 오영실, 우경호, 유재을, 윤병섭, 윤우성, 윤정오, 이강용, 이경미, 이경수, 이경호, 이남영, 이도훈, 이동범, 이동희, 이미숙, 이미애, 이상원, 이상훈, 이선진, 이수경, 이수용, 이승걸, 이승연, 이원주, 이유허, 이윤숙, 이윤주, 이인호, 이장현, 이재욱, 이정희, 이준우, 이진희, 이현동, 이흥우, 이화선, 임미옥, 임성진, 임정숙, 임종현, 임지은, 임진습, 임태준, 임향원, 장갑선, 장성식, 장우호, 장은정, 장천민, 전성기, 전 은, 정남혜, 정덕경, 정미경, 정석원, 정수연, 정윤선, 정 은, 정은주, 정재욱, 정재현, 정정화, 정지경, 정지윤, 정지훈, 정창현, 정현정, 정현주, 정혜숙, 정호태, 조경식, 조대희, 조문정, 조용해, 조우석, 조윤주, 조재은, 조정규, 조정순, 조주현, 조태준, 진병철, 차명희, 차상무, 차수희, 최경세, 최대현, 최무왕, 최봉순, 최승수, 최시선, 최영애, 최영훈, 최영영, 최재희, 최현국, 추성엽, 편정숙, 하수환, 하영욱, 한대열, 한수용, 한진희, 한창건, 허미라, 허 향, 홍경희, 홍일호, 홍종찬, 황명순, 황미숙, 황선애, 황우용, 황원기

**2020년 씨앗회원** 구인호, 서윤미, 전근배, 조현미

**후 원 금** (주)경민물류, (주)대길운수, .세원약품, 영화물류, (주)티에스물류

**물 품 후 원** · 동구사회경제문화센터 : 손소독제 160개 / · 솔잎지역아동센터 : 마스크 100매 /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카레 74개, 컵반 84개, 미니 소화기 30개 / · 나무를 심는 사람들 : 수제 잼 30개 / · 구세군 : 손소독제, 하우춘 삼계탕, 김, 비비고 육개장·미역국·사골곰탕, 생표 깃잎 반찬, 진라면 1BOX 각 35개, 김치10kg 40박스 / · 인천 송자매 진미부대찌개(송영순) : 부대찌개 50인분 / · 416연대(대구시민센터) : 100만원 후원 / · 민주노총 : 마스크 100개 · 장애인지역공동체 : 전해수기 7개 / · 레드리본사회적협동조합 : 은누리상품권 150만원 / · 세월호부모연대 : 손소독제 140개 / · 제주도 사회적경제센터 : 쌀, 참치, 칫솔, 제주도 특산품 등 각 40개, 도시락 30인분(주 2회\*4주) / · 동구사회적경제협의회·보기공방협동조합·한국사회적 기업협의회·대구사회적 경제가치연대 : 천마스크 및 필터 50개, KF94 마스크 50개 / · 대구광역시자원봉사센터 : 김치 31박스, 김치4kg 20박스, 김부각 6box, 야채수 37box, 국수 7box, 김 20box, 어묵바 1box, 어묵탕 50개, 편강 1box, 복분자 원액 2box, 아로니아 2box, 천마스크 및 마스크 필터 각 50 개 / · 안심협동조합 : 김치 2박스

**BIGDAY 후원** (개인) 강혜진, 공미정, 공영애, 곽관경, 곽해숙, 권은향, 길은숙, 김난희, 김미영, 김보라, 김선득, 김선주, 김승은, 김신우, 김예리, 김왕의, 김유진, 김유창, 김은애, 김은진, 김재경, 김재현, 김정순, 김정은, 김정훈, 김정호, 김지훈, 김지훈, 김향숙, 김현아, 김형수, 김효정, 남은주, 남호훈, 노일하, 문성환, 박동철, 박세준, 박송목, 박여진, 박정현, 박지은, 배성경, 배진교, 서숙자, 성동현, 손경수, 손민정, 송경인, 송영우, 송영주, 안혜영, 양숙희, 양현주, 염유진, 오영실, 유동관, 윤정현, 이맹자, 이상진, 이승연, 이원표, 이은자, 이인만, 이인호, 이지연, 이화진, 이희숙, 장영훈, 전인, 정재욱, 정지목, 정지용, 정현정, 조호경, 지효숙, 차우미, 최성원, 최희용, 허향, 홍종찬, 홍효림 (단체&법인) 경일대학교, (주)공감씨즈, 금강스튜디오, 꿈꾸는가게, 대구광역시사회적경제과, 대구광역시사회적협동조합협의회,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상공회의소, 대구여성의 전화, 대구여성 인권센터, 대구장애인차별금지연대, 주식회사도장마트, 레드리본사회적협동조합, 레인메이커협동조합, 기본소득당, 롯데건설, 무림토건(주), 무지개 인권연대, 무한상사,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반야월연근사랑협동조합, 부르미, 식스팜, 신대구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동행, (주)누리미디어, 에이즈전문상담사단, 엔케이판축, 지산한우, YWCA, 유앤드협동조합, 인디053, (사)자원봉사능력개발원, (사)장애인지역공동체, 소우주성문화인권센터 협동조합, 주식회사 희망정거장, (주)인플렉스, 지역문화공동체 반반협동조합, 지회국장, 행동하는의사회대구지부, 행복물류협동조합, 휴요양병원

(※ 누락되신분은 연락주시면 다음호에 꼭 수록하겠습니다.)





# Green Groove

사회적경제가 만드는 새로운 카페 협업 모델 소셜프랜차이즈  
환경 인식 개선과 동네 카페의 지속 가능한 성장 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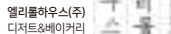
## 그린그루브 경쟁력

분야별 전문 기업의 경영노하우 지원



레드리본 사회적협동조합  
경영&서비스

소셜 카페 백엔드 운영  
2019 국무총리상 수상  
현대자동차그룹 H온도립 오디션 펠로 선정  
소셜프랜차이즈 총괄  
카페 창업 컨설팅 및 경영지원  
소셜카페 네트워크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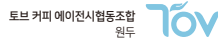


엘리콜하우스(주)  
디지털&메이커리

국내 최고 주문형 이미지제이코 브랜드  
사회적기업육성사업 최우수상 수상  
HACCP인증 생산시설 완비  
교육프로그램 및 관리 메뉴얼 지원  
트렌디한 제과·제빵 상품 공급  
신상품 개발 및 지원



전문건설(실내건축) 면허기업  
국토교통부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도시재생 및 공간 리모델링 전문  
MR·SI 개발 및 디자인 전문 지원  
상황과 트렌드에 맞는 설계 인테리어 지원  
직업 동선 효율성 증대 및 표준화 지원



토티비 커피 에이전시협동조합  
원두

한국커피협회 심사위원 및 바리스타로 구성  
분야별 커피 전문가로 구성된 협동조합  
HACCP인증 생산시설 완비  
최상의 품질로 검증된 원두 공급  
캡슐커피, 드립백, 등 다양한 상품 지원  
바리스타 등 전문적인 교육 지원

## Green groove

협업과 소통  
동네카페의 연대  
가맹점 공평거래

고객만족  
최고의 서비스  
새로운 경험 제공

동반성장  
함께 하는 성장  
혁신하는 사회적 가치

## 그린그루브 사업영역



**01** 메뉴 및 상품  
개발·보급

커피·디저트 메뉴 및 상품 개발·  
보급 통한 원가절감 및 품질 유지



**02** 공동 홍보  
마케팅·프로모션

공동 홍보·마케팅을 통한 경쟁력  
향상 및 브랜드 인지도 제고



**03** 공동구매  
물류/유통

원·부자재 공동구매를 통한  
원가절감 및 공동 물류 추진



**04** 가맹점  
발굴(확장)

사회적가치 확산을 위한 가맹점  
확산, 동네·시니어 카페 등 지원



**05** 매장관리  
·슈퍼바이징  
(운영교육·컨설팅)

가맹점 관리, 서비스 제조회 C/S  
교육을 통한 서비스 경쟁력 강화



**06** 지속가능한  
경영 지원

소셜프랜차이즈 기반 협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적가치 경영 지원



Social Franchise CAFE  
**Green groove**

070-8877-5448  
www.greengroove.co.kr